

〈표 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총외채 및 그 중 엔차관의 비율(1995년)

(단위 : %, 억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총외채	1,078.3	343.5	567.9	394.5
엔차관 비율	35.4	31.7	48.1	36.9

주 : 엔차관 비율은 장기부채만을 기준으로 한것임.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7.

【亞州經濟室 權耿德/ 申東和/ 金完仲 研究員】

動 向

西南亞 動向

印度政府는 自國 소비재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美國, EU 등에 의해 WTO에 제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PERC社는 印度를
아시아에서 경제개방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하였다.

印度, 消費財輸入 開放과 관련하여
WTO에 提訴당할듯

인도는 7월 1일 자국의 소비재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가진 무역회담에서 상호간 합
의점 모색에 실패, 이들 국가들에 의해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에 제소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년동안 EU, 미국, 일본 등은 인도
에 대해 소비재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줄기
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자
국 소비재시장을 완전개방할 경우 값싼 외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경제가 파국을 맞

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러한 주장에 맞서 왔다. 또한 인도정부는 이러한 주장의 법적 근거로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제18조를 내세우고 있다. 同 조항은 WTO 회원국이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現국제수지 상태로 보아 同國은 수입 개방에 따른 수입급증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同 견해는 97년 현재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2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더 이상 국내 소비재시장을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하게 인도 소비재시장 개방요구를 요구하면서, 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지난 6월 30일 향후 7년간 3단계에 걸쳐 소비재품목 2,700개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향후 2~3년간에 걸친 단계적인 수입규제 철폐안을 제시, 양자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더욱이 인도정부는 국내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농산물의 개방시기를 마지막 기간까지 유예한 반면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을 포함한 자동차, 알콜 등의 수입자유화가 초기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만일 同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여타 소비재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기간을 향후 5년으로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수지를 이유로 들어 이들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양자간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同 문제는 WTO에 제소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번 안건이 WTO에 제소될 경우 인도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現인도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도정부가 수입규제철폐에 대한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수지 문제는 더 이상 개방에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印度, 아시아에서 가장 開放度가 낮은 국가로 평가

홍콩의 政治·經濟危險諮問社(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 PERC)가 발간한 아시아 주요 12개국의 경제개방도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의 관세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국가중 가장 개방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동 보고서는 특히 인도의 소비재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PERC社는 아시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다.

PERC社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의 조사대상 12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각국의 수입개방도를 평가하였다. 수입개방도에 관한 분류방식은 조사대상국의 수입규제 여부를 평가, 수입규제가 전혀 없는 경우 0점, 수입규제가 가장 심한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7점, 1.78점을 받았다. 그밖에 대만(5.04), 말레이

시아(5.2), 필리핀(5.69), 베트남(5.8), 태국(6.21), 인도네시아(6.88), 일본(7.15), 중국(7.48), 한국(7.67), 인도(7.7)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亞洲經濟室 全昌浩 / 白正鎬 研究員】

動 向

舊蘇聯 動向

러시아 經濟가 금년 상반기 들어 工業生産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차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改革內閣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화 정책과 자연독점 國營企業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政治, 經濟가 안정되면서 西方國家들, 특히 日本의 對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 경제, 회생기미

금년 상반기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으나 그동안 오랜 침체를 보여 왔던 公業생산이 회복세로 반전되고 인플레이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實質GDP增加率は 전년동기대비 -0.2%(96년 상반기 -4%), 公業생산증가율은

同 0.8%(同 -4%), 농업생산증가율은 同 -5%(同 -7%)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인플레이率は 8.6%(96년 상반기 15.5%)를 기록, 前年 같은 기간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舊蘇聯 붕괴 이후 러시아는 舊蘇聯 公화국 간 협조체제 붕괴로 인한 교역금감 및 생산 하락과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체제전환기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경제침체 및